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미사 전 30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관 련 혼 배

축

배청민 미카엘

“사제 서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첫미사: 2월 9일(오늘) 오전 11시 교중미사
 ※ 교중미사 후 새사제 안수 및 축하찬치

- **감사합니다**
 - 이번 사제 서품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사목협의회 위원들과 각 단체 봉사자들, 기도해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새 사제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병자 영성체: 2월 13일(목) 오전 10시미사 후**
- **성지 가지 수거 (마감일: 2월 23일 주일까지)**
 - 지난해 받은 성지가지를 수거하오니 각 가정에 있는 성지를 성당 입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아진 성지는 태워 2월 26일 재의 수요일에 사용합니다.
 - 재의 수요일: 2월 26일(수)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 **새 예비신자 접수 안내 (8월 세례 예정, 사무실접수)**
 - 입교식: 3월 1일(주일) 12시 30분, 1층 프란치스코 홀
 - ※ 3월 1일(주일)이후에는 교리 수업 진행을 위해 예비신자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청담 영성학교 접수 (2월 9일(주일)부터 신청접수)**
 - 일시: 3월 5일(목) ~11월 26일(목), 매주목요일 오후 8시
 - 내용: 프란치스칸 영성 10회 후 현대 영성
 - 수강료: 5만원(1년) ※ 등록자에게 '영성기도 모음집'증정
 - 문의: 장 엘리사벳 (010-9787-8539)
- **티모테오 장학금 모금 및 장학생 추천**
 - 본당 티모테오 장학회는 2015년부터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계좌 : 하나은행 843-910006-6440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시 이름과 세례명을 같이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대학생, 고등학생 (신자, 비신자, 본당구역내 외 가능)
 - 추천자: 본당 사제, 수도자, 구역장, 반장, 장학회 위원들을 통해 추천(심의 후 주임신부님 재가 받아 선발)
 - 서류: 장학생 추천서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 접수마감: 2월 23일(주일)까지 기한엄수
 - 문의: 성당사무실 (02-3447-0750)

- **제 11회 청담 독서 콘서트 ‘득음(得音)’ (104화)**
 - 소리의 이치와 원리를 깨쳐 궁극에 이른다.
 - 강사: 배일동 명창
 - 일시: 2월 20일(목) 오후 8시, 2층 대성전
- **어린이 영어 뮤지컬 추가 모집 안내**
 - 청담동성당 주일학교어린이로서 영어 뮤지컬 활동을 원하는 3~6학년(예정)으로 파닉스 가능·노래와 율동을 좋아하는 남녀 어린이 (※오디션: 개별공지)
 - 문의: 정 그라타 (010-4259-5608)
- **주일학교 박람회**
 - 신바람 나는 즐거운 주일학교를 만들기 위한 ‘주일학교 박람회’가 열립니다.
 - 일시: 2월 22일(토)~ 2월 23일(주일) 1층 프란치스코홀
 - 문의: 이 마틸다 (010-5445-6827)
- **청년 성서모임 상반기 그룹원 및 봉사자 모집**
 -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복음
 - 첫모임: 3월 8일(주일) 오후 5시 미사 후
 - 문의: 박 미카엘(010-4541-7891)
- **본당 단체 회의록 및 회계장부 정기점검**
 - 2020년 교구 회계 행정감사를 위해 모든 단체는 (동호회 포함) 회계 보고 점검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사무실로 2월 16일(주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자료: (12/31일 기준) 각 단체의 회의록, 회계장부 및 통장
- **M•E 신년모임**
 - 일시: 2월 9일(오늘) 오후 6시, 1층 프란치스코홀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본당 지침**
 - 평일 저녁미사는 2층 대성전에서 봉헌합니다.
 - 미사 전 손 씻기는 필수로 합니다.
 - 당분간 성수대 성수 비우기를 실시합니다.
 - 마스크 쓰고 성당 출입 하시기 바랍니다.
 - 미사 시 신자간의 일정거리 유지 부탁드립니다.
 - 신자들과의 악수 등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 기침하는 교우분들께서는 성당 출입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 **2월 16일(주일): 양원성당 성전건립을 위한 모금**
 - 2월 15일(토)~2월 16일(주일)까지 서울대교구 양원성당의 김성만 안드레아 주임신부님께서 성전 모금 강론을 하오니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모 임**
- 2월 10일(월): 성령기도회 (강사: 박영숙 마리아)
 - 2월 11일(화): 여성 Cu.
 - 2월 12일(수): 성모회 / 시몬회 / 여성 구역장회의
 - 2월 14일(금): 남성 Cu.
 - 2월 15일(토): 청소년분과 / 초등부 자모회

성가번호 입 당: 421 예물준비: 216, 211 성 체: 501, 498 파 견: 63

화 답 송

울 끝 은 이 들 에 게 는 어 뎀 속 에 서 빛 이 솟 으 리 라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16)

서평_<칠층산>(4)

머튼의 가톨릭 개종

머튼은 오랫동안 가톨릭 신앙을 마치 중세기에 맹위를 떨치다 이제 근대사회가 된 후 박물관에 박제화된 종교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인식이 머튼의 내면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에 관한 체험을 여러 번 했지만 진정으로 신앙을 포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 생활을 하며 만난 교수, 친구들, 그리고 그가 읽었던 책들은 그가 가톨릭 신앙을 갖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철학자 질송의 책 <중세 철학의 정신>을 읽고 머튼은 하느님의 '자존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가운데 가톨릭 신앙에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올더스 헉슬리에게는 신비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사람이 들짐승과 구별되는 삶을 위해 기도와 금욕주의를 통해 영혼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헉슬리의 생각에 공감하게 되었다.

머튼은 십자가의 성 요한을 통해 '영혼의 어둔 밤'을 인식하고, 리지외의 소화 데레사를 통해 일상 속에서도 성인됨과 관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혼자 시도 하면서 기도의 참 맛을 깨달았다. 그가 가톨릭교회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불교 승려 브라만차리와 교분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다. 그 승려는 머튼에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준주성범)를 읽기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결국 머튼은 1938년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받고 11월 16일에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머튼은 대학 시절 친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세례를 받았지만 과거의 욕망, 다시 말해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여 저명한 공인으로의 명성과 성공에 대한 야망에 집착했다. <제스티> 편집위원으로 있던 렉스는 이러한 머튼에게 일침을 가하며 그가 가야할 길을 안내하며 가르치는 성령의 소리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지."(493쪽)

사제성소에 대한 갈망이 싹틀

머튼은 세례를 받은 뒤에도 계속 친구들과 어울려 쾌락의 시간을 보냈다. 자신이 원하던 작가로서의 성공을 위해 친구들과 경쟁하듯이 첫 작품의 출판에 매달렸다. 출판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과는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실패가 머튼에게 어찌면 신앙의 길로 돌아가게끔 하는 하느님의 배려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는 과거지향적 인간이 되어 새벽까지 여자들과 술 마시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그는 일말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며 고해성사를 보곤 하였다. 그럼에도 그에게서 사제가 되고자 하는 성소가 생겨나며 급기야 친구에게 불쑥 말했다. "이봐,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되어야만 할 것 같아."(524쪽) 어느 날 지하성당에서 거행되는 성시간에 참여하다가 성체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네, 저는 사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당신 뜻이라면 저를 사제로 만드소서... 저를 사제로 만드소서."(529쪽)

청담동 성당 주임 김민수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율				교무금 납부 현황			
주님 봉헌축일	12,316,570원			총 세대수	3,340세대		
교무금	33,775,000원			총 납부세대	670세대		
성소후원금 (9건)	300,000원			지난주 납부세대	213세대		
				총 납부율 (%)	20.1%		
감사 헌금 (01/29~02/04)				제대초 봉헌 (01/29~02/04)			
정 카타리나	100,000원	황 모니카	100,000원	채 루시아	20,000원	손에우스떠올라	50,000원
정 크리스티나	50,000원	민 요엘	200,000원	김 안나	50,000원	박 안토니오	100,000원
정 요셉	50,000원	익명	1,000,000원	이 세바스티안	100,000원	배 미카엘	50,000원
김 바울	1,000,000원	합계: 2,500,000원		마 발렌티노	200,000원	정 요셉	50,000원
				홍 로즈마리	50,000원	배정우,배건우	50,000원
				원 세실리아	50,000원	합계: 770,000원	